



1

글·사진 : 편집부

농업인들의 축제! 제 1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 행사명 : 제14회 농업인의 날
-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 대강당
- 주제 : 꿈에 Green 녹색성장, 함께 Green 농촌사랑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 : 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

농업인들의 축제인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수원 소재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꿈에 Green 녹색성장, 함께 Green 농촌사랑'이라는 주제로 성대한 막을 올린 이번

기념식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하여 농업인 단체장, 농협 조합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업 발전과 우리 농축산물 및 농식품 경쟁력 제고, 수출 증대에 공로가 큰 농업인 등 120명에게 산업 훈장 및 포장과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됐다.

'농업인의 날'은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1996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제정이 된 후로 우리 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거행되고 있다. 올해의 농업인의 날 기념행



① 식전공연 '아리랑 파티' ② 행사장 전경 ③ 주요인사의 모습

사 역시 농민들의 축제답게 민명나는 '아리랑 파티'의 식전공연으로 성대한 막을 열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 등 어려움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올 연말까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을 비용 절감의 원년으로 삼아 2012년까지 생산비용을 30%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에서 전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작년 농업인 평균 소득이 65.3% 줄어들었다”며 농촌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자원 순환율을 높이고, 곡물 자급율을 상승시키는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농업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산업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올바른 농업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농업인이 웃을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날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에서는 ‘감악산 산머루주’를 개발한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서우석 이사와

· 산업훈장 대상자 현황

은탑	서우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머루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 머루주 가공공장 설립 및 해외수출 · 농촌운동의 선도적 역할 수행
은탑	양춘수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조직육성 및 기술보급 · 친환경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및 학교급식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유통 활성화
동탑	주영모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화 영농 선도적 역할 수행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기술 보급 · 화학비료 최소화 농법 실시
철탑	최광석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산재매결연 등 도농교류 활성화 · 친환경 농업을 통한 도시민과의 직거래 ·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후배양성
철탑	임동추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헌신 및 조기정착 · 선진 벼재배 기술 도입 및 보급 · 녹색성장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경영비 절감
석탑	이주선	농협 조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소비 촉진을 위한 쌀가공사업 발전에 기여 · 생노동·시숙육골죽 등 식품가공산업 추진 · 친환경 유기농업 보급에 선도적 역할
석탑	배상면	우곡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의 대중화와 발전에 기여 ·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잉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친환경 농업의 조직, 기술 및 판매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원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양춘수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공동수상했으며, 이 외에 산업훈장 5명, 산업포장 8명, 대통령 표창 20명 등 총 120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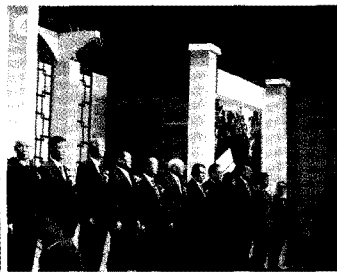
4



5



4



4 산업 훈장 및 표창모습 5 농민 연합 행사장 모습

금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위험으로 대폭 규모가 축소되어 행사장에서는 기념식만 행이 되었으며, 부대행사는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농민연합단체별로 진행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샀다.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 축시 요약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지난 1년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이 있었다. 농협 개혁과 농어업 선진화 등을 통해 강한 농식품 산업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농업계와 정부가 보조금 개편 등 주요 과제에 대해 합의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식품분야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분야 녹색성장추진대책」, 금수강산 사업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민간 자본투자 확대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4월 개최된 「농식품 투자로드쇼」는 녹색성장시대에 농업과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우리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농어업 자원을 착실하게

형성시켜 줄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현재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라는 기초를 구체화해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는 농어업인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하며, 농어업·농어촌을 전국민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나가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전하고 윤택하게 하면서, 현재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흙과 물, 그리고 생명을 살려 나가겠다. 청정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 앞으로 녹색 생명산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정부 차원의 추진정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국제유가와 사료 곡물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농업소득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내년을 비용 절감의 원년으로 삼아 2012년까지 생산비용을 30% 절감해 나가겠다.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농업인이 주도하는 비용절감 운



⑥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과 각 단체인장들이 쌀 농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⑦ 낙농육우협회 행사 모습 ⑧ 다양한 전시 및 시식행사 모습

동본부에서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체적 비용절감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상위 10%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다. 농가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과도 계속 점검할 것이다.

농식품 유통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고, 주요 품목별로 대표조직을 육성하겠다. 대표조직이 수급조절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올해 출범한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를 통해 유통과 물류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종자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해 식품과 종자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등 신시장도 개척해 나가겠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현장 농어업인의 고충과 불만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농어민 권익 보호센터」를 신설하여 소통장구를 일원화하겠다. 농어촌과 도시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 교통, 주거, 응급서비스 등 8개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겠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2차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

지난 6월 업무범위 확대, 이사회의 기능 강화 등 운영구

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이 개정되었다. 2단계로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앙회에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자회사화하고, 경제와 금융분야의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각각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특히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산지 경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사업부문별로 경영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져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때이다. 농식품분야에서는 G-20 회의를 우리 음식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식이 세계인에 사랑받는 음식으로 거듭나도록 한식문화 홍보와 한식 산업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는 분명 희망이 있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농업계도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단결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한 농정의 건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날 주제인 ‘꿈에 Green 녹색성장, 함께 Green 농촌사랑’ 이어달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자.